

이준원·손연경· 동인·서인 선교사 선교편지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Vol.02 2021.6.6

쫓겨서! 쪽 써바이 때?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원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 할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막혀있던 몸과 마음의 락다운을 조금씩 풀어주셔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발걸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엡2:14>

락다운이 해제되다...

락다운이 해제되어 레드지역에 사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씩 직장 and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도 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과 그돈을 모아 고향으로 보내야 하는 이들의 속마음이야 다 헤아릴수는 없지만 이들의 표정속에서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고 바라기는 언어준비가 잘 되어서 이들의 이런 고통의 소리들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46:1>



공장 근무 교대시간 대기하는 사람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타지역에서 온 젊은 청년들

지역연구를 시작하다...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프놈펜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인근 사찰도 찾아가고, 인근공장과 시장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문화와 뿌리깊은 토속신앙까지 확장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6,7백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힘들지만 미소가 가득합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미소를 지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우상으로 가득한 캄보디아 절 내부



절에서 수련중인 젊은 스님들



동네 구멍가에 옆에서 당구를 치는 청년들

백신접종을 하다...

이곳 한인회에서 수고해주셔서 교민들에게 시노백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국백신이라고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백신접종 후 백신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후에 지역간 이동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건물에 들어갈때도 백신카드가 출입을 용이하게 해 주기 때문이라도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복음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질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31:23)



백신접종 후 받게 된 백신카드



코로나 검사 중인 현지인



코로나 확진된 스님께 예의를 갖추는 의료진



주말마다 글씨를 지도해 주시는 쏘페아 선생님(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입니다)



격리시설 부족으로 바닥에 누운 현지인들



열악한 상황에서 신음하는 어느 임신부와 장애인 남편의 이야기

주가 일하시네...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겔22:14)

오늘도 지나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 자신에게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오늘도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쌘 뽀레아 영 뽀레딘 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우기(5월-11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건강과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도록
2. 언어훈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매일 진행합니다. 또한 배운 것을 상인들에게 매일 실천하러 나갑니다.
그때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속적인 언어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3. 지역연구 가운데 다양하게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 지역과 사람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4.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5. 코로나로 인해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고통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수 있도록